

수운교 〈용운가〉 연구*

- 교단사와 그 이면 -

박병훈**

- I. 머리말
- II. 『용운가』의 서지와 구성
 1. 『용운가』의 서지적 측면
 2. 『용운가』의 주요 반복 구조
- III. <용운가>의 내용
 1. 수운교 교단사와 관련된 내용
 2. 신이한 존재와 관련된 환상적 일화
- IV. 결론을 대신하여: <용운가>의 가치

<국문초록>

본 연구는 수운교의 가사체 작품 <용운가(龍雲歌)>를 중심으로 <용운가>에 드러난 교단의 역사를 살피는 한편, 현재의 공식적 교단사에 나타나지 않는 이면을 탐색하고자 한다. 후기 동학교단 수운교(水雲敎)는 출룡자(出龍子, 1822-1938)를 동학교조 수운 최제우라 신앙하며, 포덕천하(布德天下)·광제창생(廣濟蒼生)·보국안민(輔國安民)의 삼대원을 성취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출룡자는 1864년 좌도난정의 죄로 처형을 당하게 되었으나, 다행히 이에서 벗어나 금강산으로 은신한다. 전국의 명산대찰을 다니며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7574)

이 논문은 사단법인 기호문화연구소, 『2023년 국가등록문화유산 신청을 위한 기록화사업 보고서』, 대전광역시 문화유산과, 2023의 내용 중 본인이 작성한 부분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해당 보고서에서 발췌·수정되었음

**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제도와 수행의 길을 펼치다가 1912년 청양 적누리의 도성암에서 기도하며 지냈고, 1920년 세상에 다시 공식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1923년 서울에서 개교하였으며, 지금도 대전에서 교단을 활발히 영위해 나가고 있다.

『용운가』는 수운교 교주 출룡자가 자신의 일대기를 순한글의 가사체로 기록한 필사본 자료로 현재 교내의 용호당에 『불천묘법전수』 등과 같이 보관되어 있다. <용운가>는 신종교 교단 내에서 작성되어 해당 교단 혹은 교리에 대해 설명하고 알리는 신종교가사(新宗教歌辭)와도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공식적 교단사에 나타나는 출룡자의 탄생, 처형, 도성암 창건, 경신년 재위출세, 그리고 수운교 창교 외에도 교단사에 드러나지 않는 출룡자의 은둔시기를 아울러서 볼 수 있는 가사체 작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용운가>에서의 출룡자의 은둔시기의 경우 신종교사와 한국 전래의 설화가 만나는, 다른 자료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어: 수운교, 용운가, 출룡자, 최제우, 여우 설화, 동학, 교단사

1. 머리말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에 자리잡고 있는 후기 동학교단 수운교(水雲敎)는 출룡자(出龍子, 1822-1938)¹⁾를 재위출세한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라 신앙하며, 포덕천하(布德天下)·광제창생(廣濟蒼生)·보국안민(輔國安民)의 삼대원을 성취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출룡자는 1864년 좌도난정의 죄로 처형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에서 벗어나 금강산으로 은신한 뒤 전국의 명산대찰을 다니며 제도와 수행의 길을 펼치다가 1912년 청양 적누리에도 성암에서 기도하며 지냈고, 1920년 소위 재위출세를 하여 세상에 다시 나서게 된다. 이후 1923년 서울에서 개교하여, 2023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역사를 자랑한다. 수운교는 동학교단인 만큼 동학경전인 『동경대전(東經大全)』과 『용담유사(龍潭遺詞)』를 수용하는 한편, 『불천묘법전수(佛天妙法傳

1)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유사종교』 등에서는 이상룡 등으로 표현되나, 교단 내의 통용되는 명칭인 ‘출룡자’라 호칭하기로 한다.

授), 『훈법대전(訓法大典)』, 『동도전서(東道全書)』, 『경념총화(敬念總話)』, 『통훈가사(通訓歌詞)』 등의 독자적인 경전 자료 및 경전에 준하는 자료들, 『무궁화(無窮花)』 등의 가사²⁾, 『삼불전배례주』, 『소례참(小禮參)』, 『평례참(平禮參)』, 『중례참(中禮參)』, 『대례참(大禮參)』(상·중·하), 『금강대례참(金剛大禮參)』 등의 예참문 등 수많은 자료들이 전해지는데, 이 가운데 특히 『용운가』라는 장편 자료에 보고는 주의를 집중해 보고자 한다.

『용운가』³⁾는 수운교 교주 출렁자가 자신의 일대기를 순한글의 가사체로 기록한 필사본 자료로 현재 수운교 내의 용호당에 『불침묘법전수』 등과 같이 보관되어 있으며,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는 않다. 『용운가』는 종교 교단 내에서 작성되어 해당 종교의 역사와 교리 등을 표현하는 종교가사(宗教歌辭) 내지는 신종교가사(新宗教歌辭)⁴⁾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이를 만약 가사로 간주할 경우 현재까지 학계에 알려진 가사들 중 가장 분량이 긴 최장편가사⁵⁾가 될 터이나 『용운가』는 25권 내지는 23권의 긴 내용을 담고 있어 가사의 기본적 율격인 3·4조, 4·4조의 4음보 율격에서 이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에 가사체 작품으로 지칭하도록 하겠다.⁶⁾

이 자료는 필사본 자료 외에 1972년 교단 내에서 배부할 목적으로 인쇄본으로 100부를 발간하였는데, 많은 교인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일제강점기 당시의 표현들을 현대어 표현으로 수정하여 이용에 있어 편의를 도모하였으나, 제한된 보급과 방대한 양 등의 어려움으로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한 자

2) 한편 수운교 본부에서 발간한 자료 중에 『만세선화』란 작품이 있는데, 이는 교단 내에서 저술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 가치를 수용하여 발간한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병훈, 『동학가사 『만세선화』 연구』, 『종교와 문화』 44,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23 참조.

3) 심사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문헌으로서의 ‘용운가’는 『용운가』로, 작품으로서의 ‘용운가’는 <용운가>로 표시하도록 한다.

4) 신종교가사 전반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박병훈, 『한국 근대 신종교가사 연구 : 시운과 도덕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5) 예컨대 이승남은 일제강점기 탄생한 신종교인 금강대도의 『도덕가』에 대해 최장편가사라 하며, 가사라는 장르 안에 구분짓고 있는데, 『도덕가』의 경우 율격의 이완이 발견되기에, <용운가>와 마찬가지로 가사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작품이다. 이승남, 『<금강도사도덕가>의 종교적 의미와 문체적 특성』, 『동악어문학』 42, 동악어문학회, 2004 참조.

6) 율격이 이완된 모습을 보여주는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가사들이 존재하고, 현재 가사문학관에서 발행하는 『오늘의 가사문학』을 선두로 하여 기존 율격에서 벗어나는 가사 작품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사와 가사체 작품과의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필요하다.

료이기도 하다.

『용운가』는 출룡자 및 교단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측면뿐 아니라 당대의 출룡자가 전국을 주유하며 마주친 한말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솔직하게 담고 있다는 사실 기록의 측면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높다. 곧 종교적 측면을 포함하여 당대의 사실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그 내용을 볼 때 환상적 측면이 나타나 있기도 하다. 이런 종류의 자료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렵기에, 종교적 자료로만 치부하여 도외시킬 수 없다.

본고에서는 우선 『용운가』의 서지적 측면과 내용상 반복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 내용을 각각 수운교 역사를 구성하고 공식적 교단의 역사에도 반영되어 있는 교단사적 측면과, 신이(神異)한 존재들과의 조우 일화들을 통해 환상적 기록으로서의 측면을 살펴보려 한다. 이는 현재의 교단 공식 역사기록인 『수운교 진리』가 『용운가』 등을 주된 1차 자료로 하여 집필되었기에, 『용운가』의 어떠한 대목이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어찌하여 그러한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신종교가사 자료를 통해 특정 한국신종교 교단사의 표면과 이면을 살피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이다. 그리고 『용운가』를 통해 보는, 표면적 교단사에 나타나지 않는 교단사의 이면은 현실세계에서 볼 수 없는 환상적 존재들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무척이나 흥미롭다.

II. 『용운가』의 서지와 구성

1. 『용운가』의 서지적 측면

『용운가』는 『불천묘법전수』, 『금강대례참』, 『삼천대천세계지도』와 함께 국가등록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해 그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다.⁷⁾ 이 같은 연구 조사를 통해 기존 1972년 교단 출판본 외에 원본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으로나마 열렸다. 『용운가』의 원본은 총 25권

7) 사단법인 기호문화연구소, 『2023년 국가등록문화유산 신청을 위한 기록화사업 보고서』, 대전광역시 문화유산과, 2023. 책임연구원 성봉현, 공동연구원 박병훈, 신은미, 보조연구원 강형석이 참여했다.

신본의 규격은 세로 26.5cm × 가로 18.7cm 내외이고, 각각 한지(韓紙: 楮紙), 양지(洋紙: 노루지, Roll紙)로 되어 있다. 구본의 행수는 다양한 반면, 신본의 필체는 전체 동일하며, 글자의 행수 역시 8줄로 동일하다.

『용운가』의 저작은 교단 내 기록에서는 1929년부터 1932년까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기에, 이들 사본들도 대략 그 시기에 작성되었다고 보아야겠지만 정확한 저작 연대를 추정할 단서는 없어 확실한 판단은 어렵다. 다만 구본의 경우는 5권 표지에 ‘水雲降生 百八年 月日’이라 써 있어서, 5권의 경우 1929년 작성된 것으로 판단 가능하고 이는 교단 내 기록과도 일치하기에 구본의 다른 권들도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작성되었을 것이라 추정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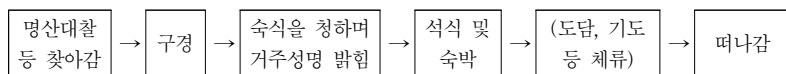
『용운가』의 서지적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72년 교단에서 발간한 『용운가』 출판본은 구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신본의 권2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이는 구본에 신본의 권2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본은 구본 중의 1권부터 12권 중간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곧 신본은 영본(零本)이다. 셋째, 구본의 권1과 권3은 박몽호란 이가 등서한 내용인데, 권1은 1965년 6월 등서를 시작하여 7월 13일에 마쳤고, 권3은 1965년 9월 13일 등서를 시작하여 12월 22일 마쳤다. 이는 구본 내용 중 빠진 부분을 후대의 교인이 보충하여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곧 구본의 성책(成冊)은 단일하게 한번에 이뤄지지 않았다. 넷째, 신본의 내용은 구본보다 좀 더 서술이 장황한 편이라 신본과 구본 상호 간의 전후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여지를 주고 있다.

용운가의 서지사황을 간략히 소개해 보았다. 앞으로 구본과 신본을 면밀히 상호비교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2. 『용운가』의 주요 반복 구조

출렁지는 1864년 허신참형 이후, 수운교를 개교할 때까지 전국의 명산대찰을 돌아다니며 전국을 주유하였고, 『용운가』는 이를 담은 기록이다. 그렇기에 이 기간 동안의 기본적인 구조는 명산대찰 등의 장소를 찾아가고, 그를 구경하며, 저녁이 되어 어떤 집이나 절에 숙식을 청하며 자신의 거주성명을 밝히고, 허락을 얻어 저녁을 먹고 잠을 자며, 다음날 떠나가는 과정이

다. 떠나기 전에 가는 것을 만류하는 주인의 간청 등으로 며칠 더 머무르며 도담을 나누거나, 때로 사제 관계를 맺어 수행 기도할 때도 있다.



<그림 2> 『용운가』의 반복 구조

이렇듯 출렁자가 정처 없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목적은 무엇인가?

어찌 이같은 사람이 무슨 포부가 있으며 재주가 있어오리까 마는 평생에 천명을 받아 좋은 명산대찰을 찾아들어다니면서 공부중에 들어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삼대원을 성취할가 바라고 산천산중마다 들어가 석굴을 찾아 들어가 공부를 일심으로 하면서 하날님께 축수하는 말이 이리 이리 저리저리 여차여차 하며 공부를 하는고로 일체청정 대해중으로 다니면서 혹 공부하여 성취공할 사람이 있으면 성취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혹 아픈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주기도 하며 사망으로 다니는 사람이라(『용운가』 13권)⁸⁾

위는 출렁자가 자신을 규정하는 『용운가』 구절인데, 동학의 미처 못다 이룬 삼대원(三大願)인 포덕천하(布德天下), 광제창생(廣濟蒼生),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이루기 위하여 명산과 대찰을 다니며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렁자는 관의 지목 등을 이유로 더이상 수운 최제우라는 정체를 명백히 밝히고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변성명하여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자 하는 한편, 은밀하게 최제우로서의 자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는 일종의 거사(居士)로서 전국의 사찰과 민가에서 숙식을 하는 가운데 거주성명을 묻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일어나는 긴장이다.

주장대사 출렁자 말을 듣고 하는말이 피차서로 같도다 하면서 출렁자와 주장대사와 여러대사 다 허허 웃으면서 그러나 귀공의 거주는 어데으며 또 속성은 뉘시오며 명호는 뉘시오며 불명은 뉘시오며 선후는 뉘시오잇가 자세이 아라지

8) 본고에서 『용운가』는 다음의 자료에서 인용토록 한다. 수운교본부, 『용운가』(출판본) 1-10, 1971.

이다 하니 출룡자 허허웃으며 하는말이 빈도는 본대 거주가 없으므로 평생 이리 저리 단이는 천지무사객으로 이름은 석룡이요 관명은 상룡이요 별호는 수운선사공이요 당호는 출세공 출룡자요 불명은 담룡처사요 법으로 쪼치면 월암선생이라 칭하나이다(『용운가』 8권)

출룡자의 다소 장황한 자기소개에 대해 사람들은 출룡자를 공부수행을 많이 한 이로 여기거나, 웃어 넘기거나, 괘세하거나 등등의 여러 반응들을 보인다. 때로 별호가 수운선사공이라 소개한 것에 대해 동학의 수운선생과 이름이 같거나 하는 때도 있고, 진정으로 수운 그 자신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다. 출룡자의 이 같은 자기소개는 수많은 숙박 과정에서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며 무수히 반복되기에 『용운가』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III. <용운가>의 내용

1. 수운교 교단사와 관련된 내용

수운교는 후기 동학교단이면서도 수운 최제우를 교조로 삼고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최제우에 대해 기존 역사 및 여타의 동학교단들과 그 인식을 달리 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역사 속에서의 최제우는 1824년 경주에서 태어나 1860년 상제와의 대화를 통해 무극대도를 얻어 1861년 포교를 시작하다가 좌도난정의 명목으로 1864년 처형당한 인물이다. 수운교에 서는 최제우가 1822년 금강산에서 태어나 동학의 사상을 펼치다 1864년의 참형에서 은신한 뒤 출룡자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방랑주유하다 청양 도성암에서 1920년 재위출세(再爲出世)하고, 박성호 등의 제자들에 의해 1923년 서울에서 수운교를 개교하였다가 이후 현 위치로 교단을 옮긴 뒤에 많은 활동을 펼치다 1938년 사망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억울하게 죽은 수운이 사실은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믿는 민중의 신앙을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매천(梅泉) 황현(黃玹, 1855~1910)은 『오하기문』에서 당대의 수운에 대한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최제우가 죽은 후에 어리석은 백성들은 더욱더 광혹에 몰들어 그 행적을 신이하게 꾸미고자 하였다. 한편으로는 칼날로부터 벗어났다고도 하고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고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태를 숨겼을 뿐 죽지 않고 현재 인간 세상에 살아있다고도 하였다.(『梧下記聞』)

수운교는 이러한 민중들의 믿음을 종교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동학교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용운가』는 출몰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세밀하게 가사로 노래하고 있기에 교단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 한편 내부적인 자료라는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⁹⁾ 그러나 내부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로부터는 알 수 없는, 교단 자체가 교단의 역사적 사건에 어떤 맥락을 부여하고 있는지 읽어낼 수 있기도 하다.

수운교 교단사에 있어 몇몇 중요한 장면들, 곧 출몰자의 탄생(1822), 처형(1864), 도성암 창건(1912), 경신년 재위출세(1920), 그리고 수운교 창교(1923)의 순간을 『용운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어화동동 군자들이 나도역시 쓸군자 없어 강원도 금강산 상상 비로봉 도솔암에 올라와 천제불공기도 정성들여 쓸 자손 하나 두어볼까하고 금강산을 불원천리하고 들어왔네 ... 노공승이 어연이 들어와 학자공부처를 불러왈 너의 부처정성이 지극하는고로 만고에 없는 선인군자될 귀자를 탄생할 것이니 너의 부처부대부대 명심불망하여 만국성군자될 귀동자를 탄생할 것이니 부대부대 귀이귀이 길러내라 어화세상 오만년지 무량 무극 삼합대도 운수를 받아 만국종교 선생될 군자라 그런고로 귀동자 이름이 부석 석룡이요 관명은 상룡이요 자는 제우요 별호는 수운선사공 수운이요 당호는 출산출세공 출몰자라 또 남이다 총하리라 그런고로 천추만대라도 출몰자라 하는이라 또 성은 이취두장성으로 행하리라 하면서 선녀등을 명촉하여 산모를 정성으로 고이고이 구완하라 ... 일동자를 탄생

9) 이창익은 종교 외부의 자료인 신문자료를 주로 하여 수운교의 한 역사를 살펴었는데, 다음과 같이 자료 선택의 이유를 밝혔다. “현존하는 많은 신종교는 식민지 상황과 관련한 자료 가운데 자기 종교에 유리한 자료만을 취사선택하여 초기 역사를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용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역사를 서술 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식민지 시기에 신종교가 실현했던 매우 독특한 종교적 가능성을 놓칠 수밖에 없다.” 이는 귀기울여 들어야 할 지적이다. 이창익, 『일제강점기 신종교의 위장 개종에 대한 연구—수운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10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3, 434면.

하거늘(『용운가』 1권)

출룡자의 부모 근암공 내외는 내금강의 비로봉 도솔암에 기도터를 정하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였는데, 노공승(老公僧)이 꿈에 나타나 내외의 정성이 지극하여 만고에 없는 선인군자가 될 귀한 자식이 탄생할 것이니, 귀하게 길러내라 당부한다. 이는 오만 년의 무극대도 운수를 받아 만국 종교의 선생이 될 출룡자인 것이다. 그리고 1822년 4월 15일 출룡자가 태어난다. 이는 『용담유사』의 『몽중노소문답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몽중노소문답가』에서도 금강산에서의 아이 탄생에 대해 진술하는 부분이 있는데(“그럭저럭 지내나니 윤신포태 되엇더라 십삭이 이미되매 일일은 집가운데 운무가 자욱하며 내금강 외금강이 두세번 진동할때 홀연히 산기있어 아들애기 탄생하니 기남자 아닐런가 얼굴은 관옥이요 풍채는 두목지라”), 꿈의 형식을 빌어 허구적 서사를 노래하는 『몽중노소문답가』와 출룡자의 탄생은 교단 내에서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곧 『몽중노소문답가』의 허구적 서사는 실제적인 서사로 수운교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1855년 을묘천서 사건과 1860년 상제와의 만남 과정을 지나, 1864년 갑자년 수운의 처형은 『용운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어허세상 참명받은 그시에 원신은 참명을 받지 않고 허신이 참명을 받았도다
어허세상 생각하니 분하고 원통하다 그러나저너라 할일없다 어허세상을 생각하니
허망하고 우습도다 그러므로 선관선동선녀 지휘하는대로 하였어라 어허세상
나는도시 못쓸 서상학이 음해로 광덕전에 나와서 참명을 받아 죽기는 죽었거니
와 참으로 원신은 아니죽고 천상락을 받아 신선으로 옥황관에 시위선관이 되어
올라갔네 어허세상 사람들아 두눈이 있거든 두눈으로 보소서 두귀가 있거든 두
귀로 들소서 어허세상 사람들아 허신이라도 시체는 감장하여 장사나 지내주소
어허세상 사람들아 나는도시 천명을 받아 오만년지 무량무극대도 운수를 받아
낸 수운공 영신영신영신이 출룡선군이 분명하다(『용운가』 1권)

좌도난정의 죄목으로 수운은 대구 관덕정에서 처형을 당하였지만, 사실은 원신이 아닌 허신(虛身)이 참형을 받은 것이며, 원신은 죽지 않고 신선이 되어 올라갔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를 수운교에서는 사지환생(死地還生)

이라 표현한다. 죽을 곳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것인데, 앞서 『오하기문』에서 보았듯 수운이 참형에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믿음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수운은 수운이라는 호를 감추기 위해 출렁자의 당호를 쓰며, 금강산으로 들어간 이후로 전국의 명산대찰 등을 수십 년간 주유천하하게 된다. 그러다 충남 청양에 들어와 현재의 청양읍 적누리 148번지에 1912년 3월 3일 도성암(道成菴)을 창건하고 1920년 재위출세 시까지 9년간의 기도처로 삼아 기도한다.

어허세상 도량청정 무화동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지내면서 사방으로 집터를 구하려고 다니면서 살펴보아도 먼저 보던 안골만 다 못하거늘 출렁자 즉시 안골로 들어가 보니 이만한 터가 없거늘 이리저리 둘러보니 삼간초옥은 지을만 하거늘 출렁자 노성오를 다려 물어가로되 이뉘 안골에서 선은 이리이리하고 후는 저리저리한 밭이 뉘밭이요 하니 그 노성오가 예 그밭이 다른 사람의 밭이 아니라 우리 일가택 밭이라 하면서 물어 가로되 거기가 전부터 다 이르는 집터라 하면서 거기가 집자리가 되고 좋아뵈이나이까 하면서 그러하면 내가 임자에게 찾아가서 알아보리라 하고 전전에 말을 하기를 다 그터가 이르는 터라 하면서 임자가 있도다 하니 출렁자 그 말을 듣고 노성오를 돌아보며 하는 말이 나는 본대 뉘가 뉘긴줄을 자세히 모르니 성오께서 그 땅을 말을 하여 주옵소서 하며 내가 어찌 하던지 집을 짓겠나이다 하고 출렁자 사방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다 근사를 얻어 이리저리 삼간초옥을 지을세 어허세상 출렁자 거동을 보소 집을 지으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사람 저사람 이리저리 말을 하여 돈백양을 얻어 노성오를 주며 하는 말이 이것을 가지고 집을 시작하면 뒤일은 내가 어찌하였던지 뒷일은 내가 대어줄 것이니 성오께서 힘을 드려 집을지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병도 고쳐주고 또 경도 읽어주고 설법말도 하여 돈도 얻어 집을 지어 일이삭만에 부처님을 모시고 삼월 초삼일날 들어가 살면서 이리저리 사방으로 다니면서 시주결식으로 십년을 지내갈세(『용운가』 22권)

노성오란 사람이 며느리의 눈병으로 출렁자를 불러 고치게 하였는데, 출렁자가 침약을 2, 3일간 써 낫게 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노성오가 누레기 동네에서 같이 살 것을 부탁하고, 뒤를 봐줄 것이라 하여 출렁자는 남산동 등을 전전하다가 결국 적누리 안골에 터를 정해서 이리저리 돈을 얻어 도성암을 짓고 9년 기도를 드리게 된다.

그 박범호 하는말이 선생님 말씀대로 선은 이리이리 하고 저리저리 여차여차 하고 후는 그리그리 하여 놓고 선생님을 모시러 왔나이다 선생님 가시기를 바라 나이다 하니 출룡자 화룡청천 도수중에 시재시재 시재광이 이아닌가 어허세상 경신구월 십오야 밝고밝은 달의 동동월구 이아닌가 어허세상 출룡출룡출룡선군 자 거동보소 … 그이튿날 떠날세 어허세상 사람들아 이날이 어느날이고 경신구 월십일이 분명하다 어허세상 출룡출룡출룡자 거동보소 … 말을타고 비를 맞으면서 서초정으로 들어갈세 어허세상 남녀노소 동녀가 나와 출룡자를 맞거늘 출룡자 그사람들께 인사받은후에 차차차차 집으로 들어와 이리저리 그밤을 지내고 그 이튿날 박성오와 이공필과 여러사람들을 불러앉히고 말을 하되 오늘날은 이미 늦었으니 내일날부터 기도날을 정하여 삼십육일이라 하면서 공부를 하라 할세(『용운가』 23권)

출룡자를 추종한 제자 중 중요한 이를 하나 꼽는다면 박성호(朴性昊)일 것이다. 박성호는 본래 시천교 교인으로 충남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에 살았다. 출룡자는 박성호를 만나 석산현기주(石山玄機呪)를 알려 주며, 주문을 외우다가 이적이 나타나면 자신을 다시 찾아오라 하였다. 이에 과연 기틀이 나타나 박성호의 형 박성현이 도성암으로 찾아와 출룡자를 모시기를 청하였다. 이에 출룡자는 박성호를 첫 제자로 맞이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 경신년 9월 15일에 청양 도성암을 9년 만에 드디어 나와 예산에 가게 된다. 이를 1860년 경신년의 선경출세(先庚出世)에 빗대어 재위출세(再爲出世)라 일컫는다. 위의 인용문은 박성호를 통하여 재위출세 시의 말을 타고 비를 맞으며 예산 서초정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맞이하고 이후 36일간의 기도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듬해 인근 대룡산 골짜기에 출운당(出雲堂)을 지었고, 신도들이 찾아와 집회와 기도를 계속 하며 포덕하게 된다.

1923년의 서울에서의 수운교 창교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도명은 무슨도라 하리요 하니 출룡자 그말을 듣고 하는 말이 전자에 도명을 천황교라 하였으니 천황교라 하지요 하니 여러사람들이 천황교라 하면 당국에서 문제가 분주할 것이니 그일이 매우 난처로다 하면서 선생님께서 다른 도명을 내리옵소서 하니 출룡자 그러하면 우리 운수를 따라 수운교라 하면 어떠하뇨 하니 여러사람들이 그말을 듣고 다종다 하거늘 어허세상 출룡자 거동보소 이리

저리 사월십오야 밝은달이 시호시호 부재내 시호로다 어허세상 그날이 어느날
 인고 사월 보름날이 당도하여 오거늘 권병덕이 천도교당에 다니면서 양해를 얻
 으려고 이말저말하야 양도할 마음이 있어 천덕고 불합교라 하고 문패를 써서 덩
 그렇게 추켜달고 이리저리 사월보름날이 당하여 큰상을 차려 출롱자와 안씨부
 인과 한가지로 상을 받고 배례를 받을세 부랑무식한 천도교당패 사람들이 그날
 수십명이 당패를 무어가지고 들어와 장난할세 또 순사들도 들어와 구경을 할세
 천도교 사람들이 좌우로 우겨싸고 있는 가운데 수운교 사람들도 수백명이 출롱
 자 상을 받고 있는차에 수운교도인들이 각자 명으로 배례한 후에 천도교 불랑무
 식한 상놈의 사람들이 달려들어 음식상을 발길로 치며 손으로 허터버리며 음식
 을 함부로 이리저리 집어던지며 분대를 놓거늘 … (『용운가』 24권)

출롱자는 1923년 권병덕을 만나 계동에 살 집을 얻었는데, 마침내 1923
 년 4월 15일 수운교의 현도식(顯道式)을 계획하게 되었다. 애초에는 천황교
 (天皇敎)라 이름하려 하였으나, 이는 일제하의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였
 고, 결국 수운교로 이름하게 되었다. 이날은 마침 출롱자의 101주년 탄강일
 이 되는 날에 개교식을 하였으나 천도교의 청년들이 몰려와 소란을 부렸고,
 관계자들이 종로경찰서에 가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1923
 년 6월 1일자 『동아일보』(3면)에도 기사로 실렸다.

위의 『용운가』에서 다루지는 ①1864 갑자년 수난 이전 시기, ②1920년
 재위출세 이후 시기는 공식적 교단사로서 『수운교 진리』에서 다루지고, 중
 간의 시기는 55년 은둔고행 시기라 하여 간단하게 다루지는 데 그친다.¹⁰⁾
 이는 갑자년 수난 이전은 초기동학의 역사와 겹치기 때문이며, 재위출세 시
 기는 교단의 개교 즈음이라 교단사와 밀접하기 때문이다.

『수운교 진리』는 본격적 교단사, 이를테면 ‘수운교사(水雲敎史)’와 같은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교단의 역사를 교리 등과 함께 서술하고 있는 교단
 발간 자료이기에, 공식적 교단사 자료라 성격을 규정지어 볼 수 있다. 『수

10) 『수운교 진리』, 796-823면까지 『수운천사의 생애 117년사』라 하여 제1부 탄강과 수도생활
 (1822년 1세~1841년 20세), 제2부 동학장도와 갑자수난(1855년 34세~1864년 43세), 제3부
 55년 은둔고행과 동학혁명(1865년 44세~1912년 91세), 제4부 재위출세와 천황씨(1919년 98
 세~1922년 101세), 제5부 수운교 개교와 도솔천궁(1923년 102세~1931년 110세), 제6부 불
 천의 묘법과 천사열반(1932년 111세~1938년 117세)로 나누어 출롱자의 생애를 설명하고 있
 으나 이는 부록이라 그 중요성이 본문에 비해 아무래도 덜할 수밖에 없다.

운교 진리』는 저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가)최수운 천사님의 탄강지는 금강산이다, 나)갑자 순도(殉道)가 아니고 사지환생이다. 다)이최 출몰자는 최수운의 변성명이다, 라)43세 참형이 아니고 117세에 열반하시다, 마)천서와 친필 문헌을 공개한다, 바)동학의 정통이요, 천황도의 주체는 수운교이다, 사)궁을은 하나님의 선약과 부처님의 감로를 상징한다.¹¹⁾ 수운교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고 교단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일종의 공식 교단사 자료라 하겠다.

『수운교 진리』의 전체 목차는 **제1편 수운천사와 동학창도**(제1장 수운 천사의 탄강, 제2장 천사의 동학창도), **제2편 수운천사와 수운교 개교**(제1장 갑자수난과 은둔고행, 제2장 천사의 수운교 개교), **제3편 개벽맞이와 수운교 사명**(제1장 예비된 개벽 도량, 제2장 수운교 사명), **제4편 교리요강**(제1장 신앙:하날님, 제2장 우주관:삼등세계, 제3장 신명관:해원, 제4장 종지:불천심 일원, 제5장 교리:유불선 합일, 제6장 강령:삼대원 성취, 제7장 이념:만화귀일, 제8장 사상:궁을영부, 제9장 주의:사인여천, 제10장 정신:개벽, 제11장 도통:성경신태극성, 제12장 수행:수심정기, 제13장 실천:오관 오계, 제14장 가치관:선인군자, 제15장 인생관:지상신선, 제16장 목적:지상천국), **제5편 교단약사**(제1장 동학의 창도시대, 제2장 은도시대, 제3장 수운교 개교시대, 제4장 일제 수난시대, 제5장 수운교 재건시대, 제6장 삼대원 성취시대), **부록**으로 되어 있다.

이 중 교단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은 1, 2, 5편인데, 은둔 시기는 간략하고 불분명하게만 서술될 뿐이다. 이렇듯 중간의 은둔고행 시기를 교단사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이유는 첫째, 그 기간의 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시기 서술이 어려우며, 둘째, 설화적 전통이 가미된 신이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¹²⁾인 것으로 보인다.¹³⁾ 곧 『용운가』는 처음과 마지막의 공식적 교단사에 반영되는 부분과, 비공식적 설화적 전통이 발휘되는 중간의 은둔

11) 『수운교 진리』, 20~22면.

12) 『수운교 진리』, 796~823면까지 『수운천사의 생애 117년사』 내용에도 “사람 흉내내는 여우 귀신을 주력으로 물리치시다.”라고 한번 언급될 뿐, 환상적인 내용들은 거의 빠져 있다. 『수운교 진리』, 810면.

13) 이런 점들은 교단사를 서술함에 있어 편집자의 시각이 어떻게 반영되어 원자료가 취사선택되는지 잘 보여준다. 각 신종교 교단의 역사서술에 대해 앞으로 보다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시기를 살펴 볼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지금껏 공식적 교단사에 반영되는 『용운가』의 내용을 보았다면, 다음에 서는 비공식적인, 다소간 환상적인 일화가 등장하는 『용운가』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해당 부분은 비록 교단사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교단의 역사에 갈하지 않은 『용운가』의 또 다른 가치를 역설한다.

<표 1> 『용운가』의 구조

단계	기간	내용	비고
처음	1822~1864	탄생부터 갑자년 수난까지	초기 동학과 겹치는 시기. 공식적 교단사에 반영
중간	1864~1920	갑자년 수난 이후부터 재위출세	55년 은둔 시기. 거의 다뤄지지 않음
끝	1920~1932(?)	재위출세부터 개교 이후까지	교단 형성기. 공식적 교단사에 반영

2. 신이한 존재와 관련된 환상적 일화

출렁자가 끝없이 길을 다니며 맞닥뜨린 존재들은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출렁자는 천명을 직접 듣는 존재이며, 계속하여 명산대찰에서 기도 공부를 하는 수행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녔다. 이 가운데 요괴 등의 신이한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며, 한국의 설화 전통과 만나는 부분 이라고도 하겠다. 곧 수운교의 공식적 교단사를 집필함에 있어, 『용운가』의 수운 최제우로서의 전반부와 출렁자의 수운교 개교 관련한 후반부만이 이용되는 것은 이러한 상상력이 발휘되는 『용운가』의 가운데 부분이 다소간 교단사와는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상상력은 종교에서 핵심적인 것이며, 주유팔도를 하는 수행자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신이한 존재들에 대한 신화, 전설, 민담과 같은 설화 및 야담의 존재들과 만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출렁자와 출렁자가 만난 신이하고 기이한 존재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서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신이담, 기이

담¹⁴)과도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이런 한국 전래의 고담(古談)에서 전해지는 귀신, 요괴 등의 신이한 존재들이 일제강점기의 신종교에서 드러난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한국종교사, 문학사, 신화사 등에 있어서도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설화와 야담에서 인간과 요괴는 그 서로 간의 관계 양상에 따라 유형이 나뉘는데, 출렁자는 불교적 정체성을 지닌 구도자¹⁵)라는 점에서 불교 신격과 토종·재래 신격간의 관계 유형을 참고해 볼 수 있겠다. 최귀묵은 이를 (1)퇴치(退治), (2)수계(授戒), (3)호법조력(護法助力), (4)구제희구(救濟希求), (5)신천동체(神天同體)로 나누었는데, 『용운가』에서는 (1)퇴치와 (4)구제희구가 해당된다. 곧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요괴를 퇴치하는 이야기¹⁶)가 많지만, 때로는 요괴가 구제, 제도를 희망하여 그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편 이 유형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신이한 존재들과 인연을 맺는 ‘이물교혼(異物交婚)’의 유형¹⁷)도 나타난다. 『용운가』에서의 출렁자가 여로에서 마주하는 존재들과의 유형은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¹⁸) 이는 『용운가』가 기존 설화·야담으로부터 그 상상력을 이어받았다는 점을 암시한다.¹⁹) 그렇기에 출렁자와 여러 요괴, 신이한 존재들과의 만남을 단순히 묘

14) “기이담은 인물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중에서도 인물이 경험한 기이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박은진, 『기이담(奇異談) 텍스트의 의미작용에 대한 연구: 야담 기이담 텍스트의 유형과 의미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44, 동남어문학회, 2017, 194면.

15) 출렁자는 나용도사를 스승으로 하며, 전국의 절을 돌아다니며 불공을 드리고 수행을 한다. 머리와 의복은 거사와 같이 하였지만, 불교적 정체성을 지녔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지금의 수운교가 불교의례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16) 정윤수는 다음의 논문에서 요괴퇴치설화를 “요괴의 퇴치”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설화”라 명명하고, <지하국대적퇴치설화>, <금돼지퇴치설화>, <두꺼비의 지네퇴치설화> 등을 통해 논하였다. 정윤수, 『요괴퇴치설화의 유형 분석-강원도설화를 중심으로』, 『강원민속학』 11, 강릉민속학회, 1995.

17) 강진옥은 이물교혼설화를 “인간과 비인간계 존재가 성적인 접촉을 매개로 서로 관계를 맺는 모티프를 수용한 설화”로 정의한 바 있다. 강진옥, 『구전설화의 이물교혼 모티프 연구』,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어문학회, 1990, 173면.

18) 여타의 세부적인 유형 분류가 있겠으나, 『용운가』에 나타나는 유형은 이 3가지가 유의미하다.

19)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통해 해당 교단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 종교적 상상력과 설화적 상상력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며, 둘째, 전통의 상징, 이야기들을 종교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것, 셋째, 『용운가』는 일종의 문학작품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변명해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숙고가 필요하다.

사하기보다는 퇴치, 제도, 이물교환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 관련 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신이 한 대상의 상대편으로 출렁자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1) 퇴치의 대상

출렁자는 기도·수련 등을 통해 요괴를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며, 전국 곳곳에서 요괴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을 구한다. 이 요괴는 보통 여우로 나타난다. 주지하다시피 여우가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전래의 믿음이 있으며, 이 여우들이 평상시에는 인간으로 행세하다가 출렁자가 요괴를 간파하여 퇴치하게 되는 구조가 주를 이룬다. 『용운가』에는 인간에게 해를 끼친 여우의 퇴치에 대해 몇몇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그 열개를 살펴보도록 한다. 제목은 필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

① <여우에 홀린 중>²⁰⁾

- ② 백두산으로 함께 동행하던 중이 보이지 않아 불렀는데, 대답이 없음.
- ③ 중이 한 여인과 희롱하며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
- ④ 중의 뺨을 때리고 여인을 폭행함.

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사 문학은 가능성의 영역이라 언명하는 다음의 글을 참조해 볼 수 있겠다.

“서사 문학은 가능성의 영역이다. 서사의 주체로서 인간은 경험적 현실을 재료로 삼으면서도, 상상력을 통해 그 현실을 재현, 변형, 창조하여 가능세계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인간이 현실의 삶을 인식하고, 그것과는 다른 허구의 영역을 새로이 개척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현실과 다르거나, 현실에 없는 비현실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서사 문학이 지닌 본질적인 속성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서사 문학의 이러한 비현실지향적인 속성은 작품의 실체에 있어 비현실적인 요소들로 실현되어 드러난다. 실제로 설화와 소설을 비롯한 여러 서사 작품들에서는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빈번하게 드러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늦은 밤이면 소리 없이 등장하는 원혼의 존재나 자유자재로 도술을 부려 악인을 징치하는 도승들, 용궁, 저승과 같은 이계의 공간들과 재생, 변신, 우연적인 사건의 연쇄 등과 같이 일상의 경험 세계와는 부합하지 않는 기이한 소재나 사건들이 ‘비현실적(非現實的)’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하는 주요한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은진, 『기이담(奇異談) 텍스트의 의미작용에 대한 연구: 야담 기이담 텍스트의 유형과 의미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44, 동남어문학회, 2017. 192면.

20) 『용운가』 17권 22a.

- ㉔ 여인이 청여우로 변함.
- ㉕ 축사진언을 하며 계속하여 폭행하니 여우가 항복하여 잡아 묶어 놓음.
- ㉖ 계속 뺨을 때리니 중이 정신을 차림.
- ㉗ 중이 말하길, 그 여인이 출렁자를 따라가면 죽을 것이니 나를 따라오라 하여 그 지경이 되었다 함.
- ㉘ 중에게 묶여있는 여우를 보여주었으나 계속 의심하여 여우를 풀어주고 변신케 함.
- ㉙ 중이 사실을 알고 출렁자에게 뉘우침.

출렁자는 함께 동행하던 중이 여인으로 변신한 여우에게 홀려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리하여 여우를 잡고 중을 정신 차리게 하였으나, 중은 묶여 있는 여우를 보고도 못 믿는 눈치다. 그래서 여우를 풀어주게 변신하도록 하여 여우임을 알게 한다. 여우는 출렁자가 오히려 중을 죽일 것이라 속이고 피어내 중을 잡아먹으려 한 것이다. 출렁자가 사람으로 변신한 여우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주문과 폭력으로 나타난다. 중이라 할지라도 여우에게 홀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출렁자가 중보다 더 도력이 높음을 은연중에 보이고 있다.

② <시체를 먹는 여우>²¹⁾

- ㉑ 초빈에서 소리가 나서 그리로 가 천수주력을 고성대독하니 백여우가 나옴.
- ㉒ 남의 초빈에 들어가 시체를 해하려 했다 소리치며 쫓아감.
- ㉓ 도로 돌아와 초빈을 살피니 시체가 많이 상해 있음.
- ㉔ 동네에 가 초빈의 상제를 찾아서 만남.
- ㉕ 상제와 함께 초빈으로 가니 다시 여우가 또 뛰어나와 산으로 도망함.
- ㉖ 상제가 빈소를 살피니 시체가 거의 먹혀 있어 정신을 차리지 못함.
- ㉗ 출렁자의 말에 상제가 정신을 차리고 시체를 거둬 잘 매장함.
- ㉘ 출렁자가 부적을 써서 은신하며 살핌.
- ㉙ 여우가 초빈의 냄새를 맡으며 사람으로 변신.
- ㉚ 출렁자가 돌맹이를 던져 여우를 붙잡음.
- ㉛ 상제가 돌맹이를 들고 여우를 때려 죽임.
- ㉜ 상제가 원수를 갚았다 하며 여우를 가지고 가자 함.

21) 『용운가』 21권 65a.

- ㉓ 상제가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니 가족들이 죽은 여우를 침.
- ㉔ 출렁자가 만류하고 또 다른 여우가 있다고 말하니 가족들이 감사해 함.
- ㉕ 그 집을 떠남.

여우가 시체를 먹는다는 관념을 반영한 듯한 이야기이다. 여우가 시신을 문헌 무덤을 파헤쳐 먹고 있자 이를 쫓아버리고 무덤에 문헌 이의 가족을 찾아 알려 여우를 퇴치하는 내용이다. 전통 유교사회에서 부모의 시신을 훼손한다는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었기에, 여우가 이미 죽어 있는데도 가족들이 죽은 여우를 막 때리며, 이를 해결해 준 출렁자에게 무척이나 감사해 하는 모습들이 등장한다. 출렁자가 부적을 써서 몸을 은신하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 흥미롭다.

③ <여우 일가족>²²⁾

- ㉑ 부인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출렁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주문을 읽.
- ㉒ 여인들이 기절한 뒤 여우가 되어 산으로 달아남.
- ㉓ 출렁자가 내려오며 젊은 부인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지 못한 모습을 봄.
- ㉔ 정신을 차리게 하고 다른 곳을 쫓아들어가니 한 부인이 여우로 둔갑을 함.
- ㉕ 축귀문을 외우며 여우를 쫓아버리고 부인에게 사정을 물음.
- ㉖ 남편은 소금장사하러 가고 시아버지는 병들어 낫지를 않아서 가재를 잡아 드리려고 들어왔는데, 한 늙은이를 만나 따라 올라가니 여우로 변신하여 그러한 지경이 되었다 함.
- ㉗ 부인이 출렁자에게 감사해 하며 날이 어두워오니 같이 자신의 집에 가자 함.
- ㉘ 출렁자가 액이 있을 것을 직감하고 같이 가지 않으려 하나 결국 따라감.
- ㉙ 집에 노구 둘이 누워있어서 출렁자가 포대기를 벗겨 보니 사람도 짐승도 아닌 것이 달려들어 출렁자가 축귀문을 외우며 몽둥이로 때림.
- ㉚ 노구가 백여우로 변하여 달아났으나 쫓아가 거의 죽게함.
- ㉛ 여인이 들어와 시부모를 왜 죽이려 하나 따지며 달려들음.
- ㉜ 여우라 생각하고 그 여인도 막 때리니 자신은 사람이라며 빌었으나 계속

22) 『용운가』 21권 71b-78b, 22권 1a-3a.

하여 때림.

- ㉓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여인은 분명히 사람이라고 말해주며, 그 여인이 김서방집으로 출가한 뒤 3,4년 살다가 상부하고 친정에 와 있다가 여우에게 홀린 것이라 사정을 말함.
- ㉔ 젊은 소년이 들어오기에 장사갔던 여우라 생각하고 축귀문을 외우며 때리니 결국 여우 본색을 드러내며 죽음.
- ㉕ 한 여자가 들어와 부모 동생을 다 죽였다고 악을 쓰며 달려오니, 출렁자가 또 때리니 여우로 변한 뒤 죽음.
- ㉖ 이와 같이 여우 네 마리를 죽이니, 여인이 애걸하여 자신의 친가, 시가 등을 밝힘.
- ㉗ 출렁자가 동네에 요물을 두게 했다고 동네 사람들을 탓함.
- ㉘ 동네에 또 다른 여우에 홀린 이들이 많다 하여 여우에 홀린 부인들을 불러 사연을 물어봄.
- ㉙ 죽은 여우 네 마리를 불태우고 여우에 홀렸던 부인들을 보내고 그 여인만 데리고 시가로 찾아 들어감.
- ㉚ 시가의 동네 사람들이 여우에 홀려 호랑이에게 물려갔던 부인이 돌아왔다고 수근대어 출렁자가 사람들에게 그 여인이 사람이나 물어보고 맞다는 이야기를 들음.
- ㉛ 부인의 서방집으로 찾아가니 여인을 반기고 둘을 들어오게 하며 출렁자에게 감사 인사를 함.
- ㉜ 며칠 묵은 뒤 떠나려 하니 여인이 수양아버지라 부르며 만류하나 결국 떠나감.

다소 길고 과격한 일화이다. 모여있는 부인들이 여러 마리 여우가 되어 달아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기에, 앞으로 많은 여우들이 등장하게 되겠구나 하는 예상을 하게 한다. 여우에게 홀린 듯한 한 여인을 정신 차리게 한 뒤 집으로 가지만 그 집에 만나게 되는 여인의 부모와, 그 집안의 며느리, 그리고 남편 넷이 모두가 변신한 여우였다. 출렁자가 그 집안에 들어오는 인간들에게 정체를 밝히기 위한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하는데, 아직 여우인지 사람인지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 사람이면 어찌지 하는 조바심마저 들게 한다. 출렁자 역시 그러한 의심을 계속하여 품고 있기에 여인의 부모, 며느리, 남편 등으로 변신한 여우 넷을 죽인 뒤 동네 사람

들이 사람이라 보증한 단 한 명, 애초에 따라갔던 여인조차 친가에 이어 시가로까지 향하게 하여 확인하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여인은 인간인 것으로 판명되고 출렁자는 떠나간다. 출렁자는 요괴에 대해 무척이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들이 주위에 해를 끼치게 두었다고 동네 사람들을 탓하기도 한다. 의심이 계속되는 서스펜스, 여우들의 반복적 등장 등이 이야기에 계속 관심을 갖게 한다.

2) 제도의 대상

인간에게 해를 끼쳐 퇴치를 당하는 요괴가 있는 한편,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제도(濟度)를 원하는 요괴 역시 등장한다. 출렁자는 기꺼이 이러한 존재를 돕고자 한다.

<못독이 이야기>²³⁾

- ㉠ 어떤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이가 누워 있어 물어보니 자신은 본래 인간이 아니라 고래가 전생인데, 용왕에게 죄를 지어 섬으로 정배를 왔다고 함.
- ㉡ 못독이가 무식한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고기라 생각하여 잡아먹을 것이라며 살려달라 하고, 수궁으로 도로 돌려보내달라 함.
- ㉢ 제도중생할 마음뜻을 본디 지닌 출렁자가 못독이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공부할 것이냐 다짐을 받음.
- ㉣ 출렁자가 천황주, 칠통주 기문축사편을 외우니 못독이가 차차 고래로 변하여 물속으로 들어감.
- ㉤ 3, 4회 주문을 더 읽은 뒤 물속을 향해 정설을 함.
- ㉥ 못독이가 설명말을 듣고 허물을 벗고 사람 형태로 나타나 출렁자를 돌아보며 수없이 절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한 뒤 헤어짐.

못독이는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말인데, 고래나 물고기, 바다요괴 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한다. 출렁자는 여정에서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존재인 못독이를 만난다. 못독이는 본래 고래지만 죄를 짓고 요괴와 같은 형태로 변해 있다. 출렁자는 제도중생의 뜻을 품은 구도자이기에 이 존재를 제도하리라 마음을 먹고, 주문을 외우고 설법을 하여 마침내 허물을

23) 『용운가』 7권, 9b.

벗기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린다. 그리하여 못독이는 고래가 되어 용궁으로 돌아간다.

3) 이물교혼의 대상

출렁자는 변신 능력을 지닌 여우와 혼인 관계를 맺기도 한다. 이는 역사적 측면이 아닌 발휘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경우의 여우는 퇴치의 대상이 되는 사이(邪異)한 존재가 아닌, 전생(前生)으로부터의 연분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경우이다. 곧 윤회전생의 불교적 세계관에서 이러한 여우와의 혼인은 괴이쩍게 여겨지지 않으며, 환상적 측면이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몇 가지 중 다음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매화초 이야기>²⁴⁾

- ㉠ 한 노구(老龜)를 만나 사람과 다른 수천 년 된 백여우라 생각하며 의심함.
- ㉡ 그 노구가 젊은 여인으로 변신하여 자신(매화초)을 소개한 뒤 출렁자를 만나기를 바랐다고 하며, 출렁자를 자신의 삼간초옥으로 데려감.
- ㉢ 매화초가 정결하고 소담한 석반을 대접하며 정성으로 출렁자를 모심.
- ㉣ 우리내외 천상옥황관에 시위선관으로 있을 때 상제님께 득죄하여 인간계에 내려왔다 하며, 전생의 인연을 이야기함.²⁵⁾
- ㉤ 매화초가 삼일간의 부부의 인연(三日同樂)을 맺자고 함.
- ㉥ 날이 새니 매화초와 집은 간데없고, 석벽산 바위 위에 덩그러니 홀로 앉아 있게 되어 허망하다 생각함.
- ㉦ 매화초가 돌아옴에 그를 책망함.
- ㉧ 매화초가 웃으며, 출렁자의 뜻을 시험해 보려 했다고 했다 하며, 다시 삼간초옥을 조화로 만들고 조반을 대접함.
- ㉨ 이와 같이 삼사 일을 지내니 삼십만 년 동락을 맺었다 하며 서로 정을 표함.
- ㉩ 다음날 이별할 때가 되었다 하며 눈물을 흘리며 헤어져 옥황관 시위선관으로 만나자 기약함.
- ㉪ 백여우로 변신해 산으로 올라감.

24) 『용운기』 5권, 49b-52b.

25)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인간계로 내려오는 과정은 흔히 적강(謫降)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무속, 불교, 도교의 성격을 두루 띠고 있어 명확한 성격 규정이 어렵지만, 우선은 전생(前生)의 일이라 표현해 본다.

노인이 젊어지며, 여우가 사람이 되는 일, 그리고 여우와의 결혼 등은 설화적인 사건들이다. 그리고 천상계에서의 인연을 바탕으로 지상계, 인간계에서 다시금 인연을 맺어 후일을 기약하는 것은 설화 혹은 고전소설의 적강소설 모티프를 잘 나타낸다. 출룡자는 사람뿐 아니라 여타의 이물적(異物的) 존재들과 퇴치, 구제, 교훈 등의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갑자년(1864) 사지환생으로부터 경신년(1920) 재위출세까지의 55년간의 은둔기를 보내왔다. 이 기간은 교단사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지만 환상적이고 흥미로운 일화가 다수 존재하기에 앞으로 보다 더 면밀한 탐구와 관찰이 요구된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용운가>의 가치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용운가>의 몇몇 가치의 언급을 통해 결론을 대신하려 한다.

첫째, 『용운가』는 신종교의 교조와 역사를 담은 드문 기록이다. 교조가 스스로의 언술을 통해 본인의 생애와 교단사를 장편으로 다룬 경우는 거의 보기 어렵다. 동학의 『도원기서』는 해월 최시형의 명으로 기록된 동학의 역사서이며, 『증산천사공사기』의 경우 이상호·이정립 형제가 증산의 제자들을 통해 증산 강일순의 생애와 이적을 정리하여 1926년 발간한 증산교 최초의 경전이다. 『용운가』와 같이 긴 호흡으로 교조에 의해 이뤄진 기록은 희귀하다.

둘째, 55년간의 은둔 기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만난 민초들의 생활상을 가감없이 다루었고, 일부는 희극적인 필치로 다루어 기록적 가치와 더불어 흥미로운 에세이같은 느낌을 준다. 이는 일제강점기 생활사 연구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고에서 다루었다시피 한국 신종교에서의 원자료로부터 교단사가 형성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교단사는 후대의 교단 관계자가 원자료의 요소요소를 취사선택하여 이뤄지는 것이다. 곧 원자료의 어떤 부분이 교단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선택되고, 어떤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선택되지 않는지 세밀하게 접근 가능하다.

넷째, <용운가>가 높은 문학적성을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문학사에 있어 의미 있는 서사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다. 동학의 『용담유사』는 문학사에 있어 중요한 작품이며, 동학 후기 교단의 <용운가>와 같은 작품들도 그 종교성의 문학적 표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용운가>의 환상성을 바탕으로 한 여우 등의 신이한 존재와의 만남은 일종의 설화와도 같다. 이들 새로운 이야기들을 기존 설화 자료군에 편입하여 비교해 본다면 또 다른 신선한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수운교는 경전 외에도 가사류를 비롯한 많은 자료들을 지니고 있으나, 그 풍부한 자료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아직 거의 없는 형편이다. 본 글에서는 수운교의 가사체 작품 『용운가』에 주목하여 간단히 서지사항과 반복되는 구조를 살피고, 공식적인 교단사와 관련되는 부분과 그 이면의 환상적 측면이 나타나는 내용을 고찰하였다. 출렁자의 탄생, 처형, 도성암 창건, 경신년 재위출세, 그리고 수운교 창교의 순간과 같은 교단의 주요 사건들은 공식적 교단사에도 나타나지만, 그 이외의 출렁자의 은둔 시기는 교단사에 등장하지 않는데, <용운가>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아울러서 볼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용운가』에 나타나는 출렁자의 은둔 시기는 옛부터의 설화적 전통이 잘 발휘되는 부분으로, 신종교사와 한국 전래의 설화가 만나는, 다른 자료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최근 한국에서 요괴 관련한 책들의 발간이 붐을 이루고 있는데 『용운가』는 새로운 콘텐츠의 보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종다양한 신이담들이 있기에 『용운가』가 여주 등을 통해 출판되거나 DB화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면, 수운교만의 자료가 아닌, 종교학계, 국문학계 등의 학계를 비롯하여 소설 등의 문화계 등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더없이 귀중한 한국학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2023년 11월 27일(음력 10월 15일)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수운교에 대해 다시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본고는 『용운가』의 기본 서지 및 <용운가>에 반영된 교단사와 그 이면의 몇몇 내용을 다루느라 다소간 성긴 글이 되었다. 25권이냐 되는 방대한 분량인 만큼, 앞으로 여러 주제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를테면 『용운가』 구본과 신본과의 내용 변화, <용운가>에 있어 당시의

시대상의 반영적 측면, <용운가> 등장 사찰과 지명의 지리정보화, 일제강점기하의 불교계의 현실, <용운가>의 설화적 특징 등이다. <용운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매력적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본 연구를 통해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용운가』 구분(대전 수운교 내 용호당 소장)
『용운가』 신본(대전 수운교 내 용호당 소장)
수운교본부, 『용운가』(출판본) 1-10, 1971.
수운교교리연구원 편, 『수운교 진리』, 수운교, 1999.

2. 단행본

- 이찬구, 『수운천사와 도성암』, 수운교도성암, 2002.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초기동학 및 후기동학의 사상과 의례』, 민속원, 2009.

3. 논문

- 강진옥, 『구전설화의 이물교혼 모티브 연구』,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어문학회, 1990.
173~203면.
박병훈, 『동학가사 『만세선화』 연구』, 『종교와 문화』 44, 종교문제연구소, 2023, 69~110면.
_____, 『한국 근대 신종교가사 연구: 시운과 도덕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박은진, 『기이담(奇異談) 텍스트의 의미작용에 대한 연구: 야담 기이담 텍스트의 유형과 의미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44, 동남어문학회, 2017, 191~230면.
이승남, 『『금강도사도덕가』의 종교적 의미와 문체적 특성』, 『동악어문학』 42, 동악어문학회, 2004, 191~219면.
이찬구, 『수운교 경진성립과정 고찰』, 『신종교연구』 17, 한국신종교학회, 2007, 53~96면.
이창익, 『일제강점기 신종교의 위장 개종에 대한 연구-수운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10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3, 409~436면.
정윤수, 『요괴퇴치설화의 유형 분석-강원도설화를 중심으로』, 『강원민속학』 11, 아시아강원민속, 1995, 105~130면.

4. 기타

- 사단법인 기호문화연구소, 『2023년 국가등록문화유산 신청을 위한 기록화사업 보고서』, 2023, 대전광역시 문화유산과.

A Study of *Yongunga* of Suwun-gyo
- The history of Suwun-gyo and its hidden side -

Park, Byoung Hoon

This study focuses on the *gasa*(a traditional Korean verse form)-style work of *Yongunga* (Song of the Dragon and the Cloud), a work of Suwun-gyo, and aims to explore both the history of the religious order revealed in the text and aspects not reflected in the current official history of the sect. Suwun-gyo, a late Donghak-affiliated sect, reveres Ch'ullyongja (出龍子, 1822~1938) as Suwun Choe Je-u, the founder of Donghak, and strives to realize its three core principles: "Spreading Virtue Throughout the World" (布德天下), "Saving All Living Beings" (廣濟蒼生), and "Protecting the Nation and Pacifying the People" (輔國安民). Although Ch'ullyongja was sentenced to death in 1864 for the crime of practicing left-hand Taoist sorcery, he narrowly escaped execution and hid in Mt. Geumgang. He traveled across the nation's sacred mountains and great temples, preaching and practicing spiritual discipline, before settling in Doseongam Hermitage in Jeongnuri, Cheongyang, in 1912 for prayer. He re-emerged publicly in 1920, formally founded the Suwun-gyo in Seoul in 1923, and the religious community continues its activities actively today in Daejeon.

Yongunga is a handwritten *gasa*-style text in pure Korean script that records the life story of Suwun-gyo's leader, Ch'ullyongja. It is preserved within the sect at Yonghodang, along with other materials such as the *Bulbeonmyobeop Jeonsu*. *Yongunga* was composed within the sect to explain and promote its doctrine and beliefs. The text not only covers the official history—such as Ch'ullyongja's birth, sentencing, founding of Doseongam, reappearance in 1920, and the establishment of Suwun-gyo—but also uniquely provides insight into his period of seclusion, which is not detailed in the official records. Particularly, *Yongunga* offers a rare perspective where the new religious history intersects with traditional Korean folktales, such as the fox tale, a feature difficult to find in other sources.

Keywords: Suwun-gyo, *Yongun-ga*, Ch'ullyongja, Choe Je-u, fox folktale, Donghak,
religious history

접수일자: 2025. 3. 30.

심사기간: 2025. 4. 1.~2025. 5. 10.

게재결정: 2025. 5. 10.